

대한 수의사회의 고양이 분양에 앞서서

이진수

서울·이진수 동물병원장

IMF 시대를 맞이 하여 날로 어려워지는 국내의 현실은 동물병원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 일본 수의사회의 협조로 애완고양이가 들어 온다고 하니 서울시 수의사회 달력에 고양이 그림을 게재토록 하였고 고양이를 동물 병원에서 키우고 있는 수의사로서 매우 기쁘고 또한 우려가 되어 사육의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사육의 동기는 1년에 400여명이 배출 되는 후배 수의사들과 경쟁을 하기 보다는 동업자의 선배 수의사로서 환축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 생각 되었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내원하는 환축의 60%정도가 고양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고양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이었는데 개업 수의사들이 동물병원에서 키워 고객들이 보고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 분양을 유도하여 고양이 숫자가 증가했으며 90년도에는 고양이 불임수술을 정부에서 보조지원할 정도가 되었다.

① 혈통 관리 및 번식

개의 경우 10년전에 비해서 많이 잡종화 되었다. 흔히 요발이 뽀발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유의 품종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다.

이유는 번식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육경험이 없는 축주들에게 어린 강아지를 출하 하고 다두를 생산 하기 위해서 모견을 큰것을 사용했거나 다른 품종이 섞인 모견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고양이만은 혈통 보존을 위해 수의사 차원에서 족보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래를 대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친 번식을 하는 경우 사산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자수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 경우는 실예가 있다.

② 사육요령

① 사료

새끼 고양이는 어미가 먹던 사료 형태로 급여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 판매시 식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대개 건식사료를 먹던 고양이는 건식사료를 습식사료를 먹던 고양이는 습식을 주로 먹게 되는데 어렸을 때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② 배변 및 배뇨

모래(시중에 3종류 정도)가 있는데 신문지를 압축한 것 보다도 모래가 좋은데 너무 고운 것은 손실이 많다. 배뇨시 모래가 뭉쳐서 버리기 쉽다.

③ 개와 비교시 사육장점 및 단점

■ 장 점

- 개에 비해서 조용하고 좁은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고 장난감을 갖고 같이 놀면 더욱 좋아한다.
- 자기 스스로 털관리를 하여 깨끗하며 냄새가 나지 않다.
- 기분이 좋으면 다리에 와서 비빈다.

■ 단 점

- 털이 많이 빠지고 가벼워 날아다니고 구석에

똥친다.

- 발톱으로 가구를 긁는다.
(예방책으로 막대기나 끈을 설치해 놓는다.)
- 야안치면 하지 않는다.
- 발톱을 제거하면 무기가 없어 사나워 진다.
- 발정시 밤에 울거나 집을 나갈 수 있다.

④ 번 식

발 정 : 20주 간격으로 발정한다.
1회 발정시 교미시키지 않으면 7일에서 21일 간격으로 2회~3회 계속 발정한다.
교미자극에 의해 배란한다. (2회~4회)
교미시 암컷이 수컷에 물려 죽을 수도 있다.
(합사 하기전 옆칸에 하루정도 마주보게 한 뒤 합사시킨다.)

⑤ 성격

- 개체마다 성격이 아주 다양하다.
- 자주 만져주면 순해지고 개처럼 만져달라고 조른다.
- 개와 같이 사육시 서로 무관심하거나 친숙해 지기도 한다.
- 개처럼 선택한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놀자고 조른다.
-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⑥ 습 성

- 높은 곳을 좋아한다.
- 아늑하고 구석진 곳을 좋아한다.
- 발톱을 갈기 때문에 긁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털을 핥아서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내에 헤어볼이 생긴다.
- 긴줄이나 움직이는 물체를 좋아한다.
- 화장실이 깨끗해야 용변을 본다.
- 턱밀을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 배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 잠을 많이 잔다.

③ 고양이 사육현황

① 현재

- 수백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
- 백신이 국내에 없다.
- 수의사들이 진료를 기피한다.
- 사료나 용품에 대해 잘모른다.
(사료에 타우린이 함유되어야만 한다.)

② 미래

- 발톱제거술, 불임수술, 백신, 용품시장(모래, 사료, 장난감) 확대로 인한 수익증대

virbac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버박(virbac)은 프랑스 굴지의 애완동물약품(백신 및 주사제 등) 전문 제조회사로서 전세계 32개국에 합자회사가 있으며 그외 47개국에 agent를 통하여 우수한 동물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진출하였습니다.

1997년 12월에 출범한 (주)버박코리아는 국내에 레비겐모노(광견병백신), 개니겐dhappil(개종합백신)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용품, 칼시데리스, 뉴트리플러스, 에피오틱, 조레틸, 조파들 및 세계 애견피부병 전문제품등으로 소동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박은 동물건강과 고객만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임상수의사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 virbac사의 이름은 virology와 bacteriology의 합성어의 약자를 딴 소동물 백신전문회사임.